

# 전주시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4년간 172억원 투입

주거지 정비·공공 기반 구축

'살기 좋은 마을' 뉴딜사업 확정



예술 마을로 거듭난 전주시 서학동예술마을이 국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울 것으로 보인다. 공방,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카페, 화실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서학3길. <전주시 제공>

화가와 도예가, 사진가 등이 동지를 틀면서 예술 마을로 거듭난 전주시 서학동 예술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최근 열린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비 100억원 등 사업비 172억원 규모의 활성화 계획과 국가 지원 사항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4년간 '예술의 힘으로, 주민의 참여로, 새 숨을 쉬는 서학동 예술마을'이라는 비전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사업은 노후 주거지 정비 및 공공 서비스 기반 구축을 비롯해 예술테마거리, 근린생활가 조성 및 창작레지던스플라자 조성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공간 마련이다.

또 마을 정원화 사업 및 첨단 안전마을 조성을 골자로 한 주민 친화적 마을조성, 주민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의 세부 내용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지역 내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총괄 코디네이터와 전담 인력을 내년 1월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이후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주민 협의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해 이번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일반근린형) 공모에 서학동예술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한 활성화 계획을 작성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 세부계획을 제출하고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절차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왔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은 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주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전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모범을 창출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남원시, 친환경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효과있네'

시내 총 연장 550m 조성

무단횡단 방지·도시미관 개선

남원시가 기존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선규제봉과 간이중앙분리대를 친환경적 화단형 중앙분리대(사진)로 새롭게 조성해 설치한다.

26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시내권인 누린대삼거리-고죽교차로(149m), 조산동-MG새마을금고장례식장-새집추어탕 구간(401m) 등 총 연장 550m를 화단형 중앙분리대로 오는 12월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구간은 보행자 무단횡단, 불법유턴, 역주행 등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해 그동안 생활민원이 제기된 곳으

로 이번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로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와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존의 차선규제봉, 간이중앙분리대 등 임시적인 도로 시설물 설치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한 영구적이고 친환경적인 이번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의 인근 주민 및 운전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남원시 건설과 관계자는 "남원의 관문인 주요 도로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2019년도에도 화단형 중앙분리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도 앞장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정읍시, 민선 7기 공약 이행 82개 사업 확정

혁신창업태스크포스 구축 등 총 사업비 1조4천억원 소요

정읍시가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5개 분야 82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민선 7기 동안 1조3948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지난 7월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실천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개 분야 82개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시는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국비 6078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48억원, 도비 893억원, 시비 5500억원, 기타 329억원 등 총 1조39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민선 7기 동안 첨단과학산업단지 국가단지 조성, 혁신창업 태스크포스 구축 등 5건의 일자리·경제분야 사업을 전개한다.

또 한우테마거리 조성, 귀농·귀촌인 지원자금 확대, 예코축산 추진 등 11건의 농축산분야 사업을 전개해 농민 소득 증대에 나선다.

교육·복지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 등 21건의 사업을 펼쳐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또 녹두장군 전봉준 거리 조성, 역사탐방 드라이브 길(이팝나무길) 조성,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위상 강화 등 21건의 문화관광사업을 전개해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정읍경찰서 신축, 장명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태인축구장 건립, 대형스포츠 타운 건설, 여성화장실 긴급 호출벨 완전 설치 등 21건의 도시·건설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공약사항은 앞으로 4년간 정읍시가 나아갈 시정방향에 대해 시민들에게 다짐한 약속이며, 책임감을 갖고 임기내 100%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익산시, 시민고충 민원해결 앞장선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읍부즈맨 만남의 날 운영 올해 20여건

익산시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주민고충 민원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과 읍부즈맨 만남의 날을 운영해 20여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매월 둘째주 월요일 읍부즈맨 만남의 날을 통해 고충민원을 상담해 왔다.

읍부즈맨은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을 시민전문가 입장에서 해결토록 중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읍부즈맨의 역할을 통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과속방지턱 설치, 상습침수 지역 농로 및 농배수로 정비, 주택가 골목 침수예방 시설 등의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된 농업관련 분야의 쌍방·다수 진정민원에 대해 자료 검토와 민원인 직접 면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민원을 조정해 진정인과 직원 상호간의 고충을 덜어줬다.

익산시 관계자는 "2019년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와 읍부즈맨 만남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불합리한 행정제도,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 등으로 인한 주민 권리 침해 등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교수 등 5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익산=유정명 기자 yjm@



지난 23일 군산새마을금고컨벤션센터(GSCO)에서 국내외 선사와 전라·충청지역 수출입 기업 등 물류업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산항 홍보설명회'가 열렸다. <군산시 제공>

## 군산시, 선사·기업 관계자 초청 '군산항 홍보설명회'

군산시는 지난 23일 군산새마을금고컨벤션센터(GSCO)에서 국내외 선사와 전라·충청지역 수출입 기업 등 물류업체 관계자 300여명을 초청해 신규 물동량 유지를 위한 '군산항 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와 군산항만물류협회가 주최하고 전북도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후원했으며 군산항 이용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서해중부권의 관문으로 거듭나고 있는 군산항의 장점과 비전, 다

양한 인센티브, 군산항 개발계획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군산항 현황 및 이용 혜택의 설명과 신남방정책을 선도하는 군산항의 역할에 대한 특강 등이 이어졌으며 군산항 부두운영사와 선사, 항만유관기관이 상담·홍보부스를 운영해 수출입 기업들과의 즉석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6000만원,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